





서가풍경

‘골동품’ 과 ‘별종’ 으로 가득한 사진 박물관

신구대 사진과 홍순태 명예교수의 서가

사진가 홍순태 명예교수(67, 신구대 사진과)의 서가는 사진 박물관이다. 세상에 선보인 지 100년이 넘는 ‘카메라 옵스큐라’에서 ‘멘도르’ ‘포토 데포르’를 비롯한 ‘골동품’ 카메라, 그리고 8"×10" 카메라 가운데 최고 명품으로 꼽히는 ‘디어돌프’까지 130여종의 카메라가 진열장에 빼곡히 들어앉아 있다. 스파이들이 쓰던 마이크로 카메라의 필름을 비춰보는 ‘미녹스’ 프로젝터와 입체사진을 찍는 스테레오 카메라, 수중 카메라 등 ‘별종’들도 한 칸을 장식한다.

홍교수는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유명하다. 그는 카메라 하나만을 달랑 들고 지금까지 130여개국을 다녔다. 거실 한쪽에 걸려 있는 커다란 세계지도에는 붉은 깃발이 꽂혀 있는데, 그의 카메라에 ‘정복’당한 국가들이다.

“사진은 기록입니다. 초기에는 전국의 사찰과 고가 등 민속 자료를 많이 찍다가, 나중에는 도시를 렌즈에 담았습니다. 지금은 사라져 가는 소수민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수민족에 대한 사랑은 벽에 가득 걸린 전세계의 마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반드시 마스크를 구해온다. 그 민족의 얼굴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마스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홍교수는 음악광이기도 하다. 1500장에 이르는 LP에서 나오는 시적인 음들이 그의 작업에 영감을 제공한다.

사진가이기에 사진집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 40여년 넘게 모았다는 7천여권의 사진집은 사진에 대한 그의 타오르는 열정의 소산이다. - 최갑수 기자

